

## 총장 학위수여식 치사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2년 또는 3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4년의 간호학과 학사학위 과정, 그리고 1년 또는 2년의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을 모두 잘 마쳤기에 오늘 자랑스러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공부하며 힘들게 이 자리에 있게 되신 산업체위탁과정의 졸업생 여러분들에게도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자 과정은 달라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땀과 열정은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있기까지 이들을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들의 미래를 응원해주며 애써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번 학위수여식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거행해야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해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졸업식을 취소함으로 이러한 시간도 갖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졸업학년을 거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수강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비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또는 가정문제 등 각기 다른 문제들을 겪으며 대학과정을 보낸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슬픔과 분노도 겪었을 것이며, 실망과 절망도 겪었을 것이며, 좌절도 맛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학과정에서 꼭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위로도 있었을 것이며, 희망과 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 졸업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대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대학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나요?

푹푹한 새내기로 캠퍼스에 들어섰을 날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기억나겠지요. 과제와 프로젝트로 밤샘 작업을 하는 일과 현장실습, 임상실습의 경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준비, 국가고시 준비와 자격시험, 밤을 새가며 시험공부를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열정을 쏟던 일, 축제의 추억, 친구와 인생을 논하고 장래를 고민하며 함께 했던 시간들, 이성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사귀기를 했던 일. 교수님들과의 상담과 강의실에서 의 추억등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노애락을 이 캠퍼스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경쟁하고, 고민하고 기뻐하며, 특히 여러분들의 열정을 이 곳에서 불태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들로 수십년 후 나의 모교 안산대학교를 기억할 때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더 큰 사회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더 큰 과제와 책임을 맡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이라는 기쁨도 잠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취업걱정, 장래걱정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첫 직업을 구하는 졸업생에게는 코로나 시대에 취업은 잘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할 텐데 윗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이 사회는 어떨까? 나는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사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뒤처질까에 대한 두려움. 갈수록 떨어지는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은 이 곳에 남겨두고 떠나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6:34)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대학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여러분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기분야에서 능히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열정과 희망과 기대감과 도전정신과 자신감과 설렘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는 항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한 달리기 선수처럼 여러분은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동안 안산대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자리에서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지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께 몇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가꾸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보았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함께 만들고 가꾸고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과 부를 좇다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의 문제와 부조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주길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의 주제곡처럼 “Try Everything”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경험하십시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변화가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포메이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은 이미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Z세대이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소비자가 아닌 디지털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의 ‘포노사피언스’ 라는 책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생산자로서의 포지션이 없다면 돈을 벌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션은 챌린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좋은 가정을 꾸리십시오. 많은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전 있었던 정인양 사건도 잘못된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불행한 피해사건이었으며, 가정의 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 희생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행복하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되며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 불의와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나이에 학업의 열정으로 만학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 졸업을 맞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도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과 성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안산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러운 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학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위취득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2월 5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안 규 철